

결국 MB 정부가 죽음을 시작했다. 대운하사업이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4대강 살리기'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고 반생명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여론 호도'를 통해 비판의 촉점을 둘러싼 잔머리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서울의 한강처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한강은 시멘트 개발로 인해 죽음이 강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데, 자연의 4대강을 도시의 강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이다. 지난 20년 동안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산간 국지를 제외하면 홍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보 건설과 준설로 현재 4배가 넘는 저수량이 한꺼번에 하류로 집중되면 지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홍수 위험이 더 높아진다.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수량을 확보하는 일보다 수자원 관리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을 낭비하고, 물 관리에 미숙할 뿐이다. 4대강 파헤친다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토목공사에 의존한 물부족 현상 타개는 공여지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



불자 세상보기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조계종 환경위원

지금이라도 4대강 계획 중단하라

은 무모하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세우면 물흐름이 정체되어 수중의 인과 질소 농도가 높아져서 수질이 떨어진다.

4대강을 뱃길로 만들려면 부둣이 강줄기를 직강화 또는 고정화하는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강변에 바위, 모래섬, 둔치, 여울, 호소, 늪과 같은 자연지형이 사라진다. 유람선 통행이 가능한 6미터 수심에서는 물고기와 수서곤충들의 산란처인 수초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칠새들의 낙

원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변 조지와 습지가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서 개체수의 감소는 물론 오히려 종의 다양성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은 생태의 기본상식이다.

이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5개월 만에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가제는 계획이라고, 정부 내 소급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이 반역사(反歷史)적 역사(役事)에 면죄부를 내주는 데 오히려 앞장섰다.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 22조

를 훨씬 넘어섰다. 각 부처의 연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달할 것이다. 여당 안에서조차 삭감론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비와 의혹은 예산 심의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너무 소박한 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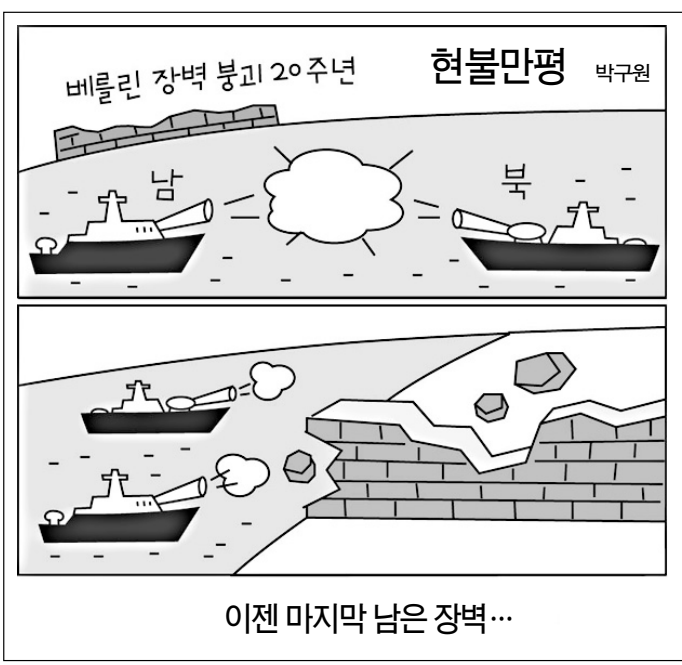
사업에 참여하는 재벌들은 배가 부르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이윤을 지역에 내놓겠는가.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인 현상, 단순노동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대운하 계획 때도 그랬지만, 4대강 개발로 사찰 등 문화유산 접근이 용이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교의 발전이 아니라 사찰의 관광화일 뿐이다.

이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는 한국불교 1천년 최대의 발단이 될 것이며, 한국불교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게 될지 모른다.

늦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멈추어라. 그것이 국토와 백성을 위한 길이고, 또한 정부 스스로를 위한 길이다. 정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 훗날 정부의 길이 남을 치적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사팀 현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지사안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급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1월의 테마-시간

시간은 존재가 아니다. 그저 존재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소유할 수도 없고 다가오는 시간을 잡라낼 수도 없다. 다만 그렇게 시간은 간주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시간은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정을 하려면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로울 줄 알아야 하고 긍정을 하려면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은 어디 그런가. 그저 부정하면 느낄 수가 없고 긍정하면 그것에 이끌려 갈 뿐이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 자신이 저 시간을 바라 볼 뿐이다. 아니 그대로 두고 느낄 뿐이다. 결국 나와 시간에 대하여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만 나와 시간은 같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단지 상대적이고 가설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존재성을 체험하려면 영원을 긍정하고 터득해야 한다. 영원이란 나와 시간이 동일한 점에 공

진정한 영원은 참나에 있다

존하는 것이다. 곧 참나일 경우에만 영원할 수가 있다.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영생불사(永生不死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에서도 그랬고 중국의 신비술에서도 그랬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후 하늘에 태어나 거기에서 불사의 생활을 한다고 간주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선술의 방식으로 불로불사의 묘약을 발명하려고 고심하였다. 불교는 이와 같은 불사 및 생전(生天)의 사상을 대가방편설(對方便便說)로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 비판을 가하면서 그것을 초월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에 대하여 집착이 나타나고 집착이 있는 곳에는 미혹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미혹이 있는 곳에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영생불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다.

영생불사의 사고방식에서는 사를 버리고 생을 취하려고 한다.

불교는 이와 같은 분별적인 입장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생과 사의 대립을 초월할 것을 설한다. 그것이 곧 무생무사(無生無死)라든가 불생불멸(不生不滅)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하여 생사

불이(生死不二)의 입장에서만 참으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생이 체험된다는 입장이다. 그와 같은 체험에 대하여 선에서는 영원이 곧 현재[久遠即今日]라고 말한다. 소위 '영원한 현재'로서 결국 지금 이 참나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다. 아니 참나에서 영원이 체험된다. 곧 진정한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참나에 있다.

참나의 현재자발로 영원이 체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는 사후가 없다. 그저 '현재의 영원'을 느낄 뿐이다. 이것은 피차의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한다. 그것이 곧 사바즉정토(娑婆即淨土)의 체험이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절대긍정이며 인생에 대한 크나큰 달관이다. 생이 다하고 사가 오는 것이 아니다. 생이 그대로 불생이고 사는 그대로 불사이므로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다. 이것을 불이생사라 하였는데 그것이 곧 선의 체험이기도 하다.

김호귀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社說

명상문화연구원에 거는 기대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때, 불안한 마음을 비우고 쉬게 하는 명상은 소화불량, 기승 답답증,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좋은 약방문이 되고 있다.

매순간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불교명상문화원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이 발족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활동을 비롯해 서적 발간과 수행용품 개발, 명상실천조치 결성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간화선을 비롯한 어려운 수행법에 막혀 명상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원은 위빠사나를 비롯해 염불, 절, 주역, 간경, 호흡법, 요가 등 다양한 수행법 전문가들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수행자들의 전 유물이었던 수행법을 대중에게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서구에서 먼저 불기 시작한 명상 열풍은 상업성을 가미한 이른바 '제3 수행법' 붐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간접 포교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이 '명상'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간화선을 비롯한 전통 불교수행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일반인들이 불교명상을 통해 언제나 가슴속에 산사의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명상문화연구원을 비롯한 수행전문가들의 보다 큰 원력과 보살행을 기대한다.

'친일인명사전' 과 불교계의 역사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가운데 불교계 인사 54명이 포함됐다. 편찬위원회는 친일불교 단체 주요 임원, 기고나 강연을 통해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자 등을 중심으로 친일 인사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일인사 54인 중에는 근현대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종익, 강대연, 권상로, 이회광 스님 등의 명단이 보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조선불교조계종을 설립한 이종익 스님의 경우, 자신의 독립운동을 은폐하려는 위장 전술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불교계의 빈약한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리 및 사상만 강조하고 근현대불교사를 황무지로 방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늦었지만, 호국불교란 말이 부끄럽지 않게 불교계의 친일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근현대불교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잘못된 역사 기술은 정정을 요구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가 필요하다.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친일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족불교의 이미지에 걸맞게 친일파재산환수나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과 같이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공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공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착구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비술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공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공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집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02) 3667-4446
 010-3813-4443